전자결재 ID 도용 9억원 횡령

광주KBS 직원 5년만에 '덜미'

KBS 광주방송총국 총무팀 회계담당 여직원 김모(여·42)씨는 지난 2002년 초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가정주부인 김씨는 회계처리 건수가 폭주하는 시기를 악용, 전표를 직접 위조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하지만 2003년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돼 횡령이 어렵게 되자 예산회계 시스템을 담당하는 전산직 직원의 ID를 도용,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가 눈독을 들인 돈은 K통신회사에 지급하는 회선 사용료. 방송국 측이 K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돈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전자 전표를 작성, 본사에 보낸 뒤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을 썼다.

김씨의 횡령은 20여 차례나 계속될 동안 '아무 탈'이 없었지만, 최근 내부자 고발로 꼬리가 잡혔다. 지금까지 밝혀진 횡령액은 9억여원. KBS 측은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보안 관리와 감독 소홀 여부, 내부 공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6일 김씨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 횡령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범 등 추가 범행이 밝혀질 경우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포탄공장을 통째로 미얀마에 불법수출

방산업체 7개사 1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6일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 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60) 사장과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기) 김모 부사장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초 미얀마 정부기관인 국방산업소와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류, 기술자료 등을 1억3천380만 달러를 받고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업체들은 2002년부터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거나 포탄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로 보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입수한 포탄 및 부품도면을 이용해 포탄 부품 수천 개를 시험 생산하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Trend 트렌드

가족봉사

보람된 일 함께하면 자녀교육은 '덤'…

불우 이웃돕기 새 대안으로

광주 104가족 370여명 활동…주 5일제 이후 확산

가족끼리 한 팀을 이뤄 불우한 이웃을 돕는 '가족봉사'가 봉사활동의 새 트렌드가 됐다. 자녀 교육에 큰 효과가 있는데다, '주 5일제' 본격 도입 이후 가족이 함께 보람된 시간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내 각 자원봉사센터도 새 모델이 자발적으로 활발히 운영되자, 일과성(一過性)으로 끝나는 기관·단체 봉사활동의 대안(代案)으로 주목하고 있다.

◇언제 시작됐나=새로운 봉사활동의 전형(典型)으로 떠오른 '가족봉사'는 지난 2002년 봄, 광주 남구청 자원봉사센터가 맨 처음 시작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참여 가족의 자녀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부모들에게도 필요한 경우 '인증서'를 줬다. 이후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도입했고, 광주 청소년자원봉사센터(2004년)와 동구 자원봉사센터(2005년)가 뒤를 따랐다. 서구의 경우 올해 5월 10여 가족이 새로 합류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50가족 200명 ▲동구 자원봉사센터 23가족 88명 ▲서구 21가족 80명 ▲남구 9가족 40명 등 104가족 37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은 어떻게='가족 봉사'는 센터 측이 소개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자녀와 자매결연을 맺고 1주일에 2~3번 직접 찾아가 청소·반찬 제공 등 봉사활동을 벌이는 것이 기본 역할이다. 매월 센터 측과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에도 참여한다. 필요한 경비는 가족들이 충당한다. 남구의 경우 참여 가족들이 매월 월례회를 갖고 있으며, 1만원씩의 기금도 적립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는 21가족을 두 팀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그중 '밝은빛 가족봉사단'(11가족)은 시각장애인 시설인 광주 유덕동 '영광원'을 중점적으로 돕고 있으며, 10가족으로 구성된 '나누미'는 특정시설을 정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어떤 활동하나=동구의 경우 지난달 25일 '이일성로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김치를 버무려 전달했다. 앞서 10월엔 '행복재활원' 중증장애인을 금호패밀리랜드로 초청, 놀이기구 체험 등을 가졌다. 서구 '밝은빛-'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에서 점토체험을 했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속 멤버들은 곡성군으로 농촌봉사 활동을 갔다.

남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아버지·어머니·자녀가 함께 나오는 봉사단은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 움직이고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마련하는 게 특징"이라며 "무엇보다 가족애를 돈독히 하고 자녀교육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7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6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활발한 가족봉사 활동을 펼쳐온 양미선(여·47·서구 화정동)씨에게 시장 표창을 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참 〈6995〉 김종두

"한미 FTA 중단" 금남로 평화시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희성) 조합원 400여 명이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 등 결의대회'를 가진 뒤 '한미 FTA 반대'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금남로로 행진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금남로 행진을 원천봉쇄할 계획이었으나 충돌을 우려해 2개 차선을 개방했고, 조합원들은 오후 6시께 자진해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세금 돌려달라" 주인집 아들 납치

쌍나팔

○…화순경찰은 6일 전세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임대인의 아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닌 김모(여·46)씨를 영리약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30분께 화순군 화순읍 모 아파트 앞에서 유치원에 가던 이모(6)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끌고 다니다 두 시간여 만에 풀어줬다는 것.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전세아파트가 이군 가족의 사업 실패로 경매 처분되자 전세금 3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군을 볼모로 잡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전화 번호 추적에 나선 경찰의 설득으로 자수.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쥐포 사죄편지' 속 슈퍼 아저씨 찾고 보니 이미 '하늘 나라'에…

유족 "10만원 불우이웃 돕는데 쓰겠다"

"20여년 전 어린 시절, 슈퍼에서 쥐포를 훔쳐먹었는데 사죄하고 싶다"며 현금 10만원과 함께 경찰에 우송된 '사과 편지' 속 '장애인 슈퍼 아저씨'가 밝혀졌다. 〈본보 12월 1일자 7면〉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오익호(42) 경사는 익명의 편지를 받은 이후 아저씨를 찾아 나섰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도로가 철거되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백운초등학교에 다녔고, 이름이 '명완'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오 경사는 학교 학적부에서 '하명완'이란 이름을 찾아내 컴퓨터로 조회했다.

하씨 가족의 현 거주지는 북구 동림동 우미아파트. 하지만 다리 한쪽이 불편했던 '슈퍼 아저씨' 하규열씨는 폐암으로 지난 2002년 9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부인 이양림(67)씨는 아들 명완(42·회사원)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경찰은 6일 사죄 편지와 현금 10만원을 전달했다. 이씨는 "하늘에 계신 남편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다"며 "10만원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는 "어릴 적 동네수퍼에서 장애인 주인아저씨 몰래 가게에 진열돼 있는 '쥐포'를 여러 번 훔쳐 먹어 주인 아저씨에게 사죄드리고 싶으나 도로 확장으로 사라져버린 수퍼를 찾을 길이 없다"며 현금 10만원이 든 익명의 편지가 배달됐었다. /서민정기자 viola@